 보 도 자 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11.16.(수) 조간 2022.11.15.(화) 11:00	배포 일시	2022. 11. 15.(화) 06:00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심규석 (044-200-5846)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응으로 겨울철 인명사고 막는다 - 기상악화, 화재위험 증가 등 겨울철 위험요인 집중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겨울철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2주가량 앞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기상악화 및 화재·전복사고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 해양사고 사망·실종('17~'21): 겨울(172명) > 가을(168명) > 봄(152명) > 여름(99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 안전사고, 충돌, 전복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 여객선, 고위험선박 등 주요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 사고·재난 대비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겨울철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우선, 해양수산부는 실족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홀로 선박* 350척에 대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한다. 또한, 조업이나 항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줄 착용 등 작업안전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승선원 1명인 조업어선으로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자력으로 구조하기 어려운 선박

아울러,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주변 선박정보 범위를 30마일로 확대(종전 6마일)해 선박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레저선박에 대한 충돌예방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2. 주요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먼저, 설명절 귀성객 수송 등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160척)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여객선(24척) 여객수송 재개에 따른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근해연승·자망어선 등 30척을 대상으로 화기사용, 전기·가스설비, 연료탱크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내 계류선박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1월 17일(목)에는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항해 통신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와 구명설비, 기관실 내 발전기 등의 상태, 그리고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조승환 장관은 이후에도 현장을 찾아 겨울철 안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연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손상사고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 지자체, 수협 및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시도별 연근해 어선 100척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정비요령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3. 사고·재난 대비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여객선·여객터미널 등 소관 다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인파사고 안전관리 실태 등을 긴급점검*하고, 각종 재난 등 유사 시 즉각대응이 가능토록 종합상황실 상황근무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해양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를 적극 실시하고, 사고다발해역**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경비정을 근접배치한다.

* 점검대상: 연안여객선 150척, 국제여객선 3척, 여객터미널 15개소, 박물관·체험관 5개소, 학교 2개소(다중이용시설 22개소, 여객선 153척 등) / 점검기간: ~12.9

** 동절기 사고다발해역 73개소 지정(전국 20개 해경관서별, '22.10월 기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기상악화와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해 해상 생존 가능시간이 짧아 인명피해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작년부터 이어온 인명피해 저감기조 유지를 위해 이번 겨울철 안전대책을 평년보다 2주가량 앞당겨 추진하는 등 철저한 현장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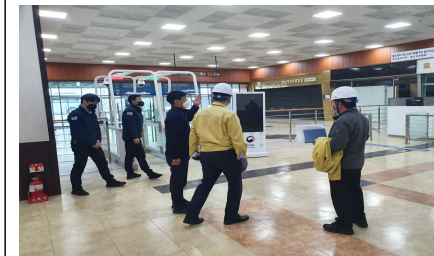
참고 1 현장 점검 사진



<양망기 비상정지장치 시연>



<해양안전 현장 캠페인>



<국제여객선 터미널 현장점검>



<카페리화물선 안전점검>



<나홀로선박 구명조끼 보급>



<하역설비 점검>

참고 2 2022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요약)

□ 사고현황 및 위험요인('17~'21 통계분석)

- (사망·실종) 해양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실종자(591명) 중 약 30% (172명**)가 겨울철에 발생, 연중 인명피해 위험성이 가장 높음

* 사고건수로는 전체 14,100건 중 20%(2,763건)가 겨울철(연중최저)에 발생

** 유형별로는 안전사고 84명(49%), 충돌 38명(22%), 전복 34명(20%)이 91% 차지

- (위험요인) △낮은 풍랑특보* 및 저수온(평균 13.6℃), △설 연휴 여객선 귀성객 증가, △화기사용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위험 등

* 동절기 월평균 9.7회로 타 계절 평균(6.6회) 대비 월 3.1회가 더 많음

□ 주요내용

< 추진 방향 >

◆ 3대 인명피해사고(①안전사고·②충돌·③전복) 중점관리

* 주요원인: ①구명조끼 미착용·안전수칙 미준수, ②견시소홀·항법미준수, ③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 주요 취약분야(여객선·고위험·다발사고) 안전관리 강화

◆ 사고·재난 대비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해경청 협업)

1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 (안전사고^{49%}) 나홀로조업선 팽창식구명조끼* 보급(350척), 갑판작업 주의·안전줄 착용,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제도, 안전교육*** 강화

* 해상추락 및 목격자없는 인명피해가 안전사고 사망·실종(84명)의 61%(51명) 차지

** 기상특보 발효시→승선인원 소규모 어선 상시착용(「어선안전조업법」 개정, '25.10 시행)

*** 어업인교육자문단 출범('22.11), '해양안전의날'(매월1일) 계기 안전의식고취 캠페인(지역별)

- (충돌사고^{22%}) 바다내비 단말기 안전경보 서비스 확대*,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어선·레저기구(94%**) 대상 충돌예방 집중교육(항법 등)

* 주변선박정보 표출범위 확대(6→30마일, 일반선박), 레저금지구역 표출로 충돌예방

** 최근 5년간 충돌사고 사망·실종(81명) 중 어선(낚시어선 포함) 70명, 레저기구 6명

- (전복사고^{20%}) 기상특보 시 출항·조업제한 의무화*, 원거리(100km ↑) 조업어선 실시간 위치관리 강화를 위한 위치발신장치 보급**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시행(10.18), 풍랑주의보시 15톤(겨울철 30톤) 미만 출항+조업제한

** 근해어선 대상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보급: '22년 700척, '23년 450척

2 주요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 (여객선) 설연휴 대비 연안여객선 민·관합동 전수점검(160척)·24시간 모니터링*, 국제여객선(24척) 여객수송 재개**에 따른 중점점검***

* 항로이탈, 선속감소, 기관고장 등 이상확인 시 즉시호출·대응(KOMSA 운항상황센터)

** 한·일 8척(10.28), 한·러 1척(8.10), 한·중 15척(미정) / *** 구명·소화설비, 여객안전관리

- (화재·폭발) 취약선박* 특별안전점검, 화재 조기진화·신속대피를 위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의무화**, 계류선박 관리(수리허가·수시순찰)

* 화재다발 근해연승·자망·통발어선(30척) 기관실, 연료탱크, 전기·가스설비 중점점검

** 2톤 이상 어선에 화재경보기(연기+열감지) 연계 소화장치 설치(「어선설비기준」)

- (기관손상^{31%}·부유물감김^{11%}) 어선 기관설비 등 집중점검*, 단순고장 자가정비요령(동영상) 배포, 부유물감김 사고정보 시각화 제공**

* 연근해어선(낚시어선 포함) 시도별 100척, 노동부·지자체·수협·KOMSA 등 합동

** 바다내비 단말기+앱 및 GPS플로터를 통해 전국연안 사고현황 분석정보 표출 및 항행장애물 현황도(전국 6개권역, 해경청·KOMSA·KOEM 협업) 제작·배포(1,200부)

3 사고·재난 대비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 (다중밀집시설 안전강화) 이태원 사고 관련, 여객선·여객터미널* 등 대상** 인파사고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10.31~12.9, 안전정책조정위 논의)

* 과승·과적, 승·하선설비, 선내질서유지, 수용인원, 안전요원배치, 비상대피로 확보 등

** 연안여객선 150척, 국제여객선 3척, 여객터미널 15개소, 박물관·체험관 5개소, 학교 2개소

- (긴급대응태세 확립) 상황실 근무기강 확립,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어선·여객선) 철저, 사고다발해역* 감시강화·경비정 근접배치(해경협업)

* 동절기 사고다발해역 73개소 지정(전국 20개 해경관서별, '22.10월 기준)